목장 교재 2018년 11월 25일 (주일)

“티테디오스”

요 14:1-3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두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례를 거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의 수난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어조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버려두시고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급격한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할때 1절을 말씀하신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여러가지 변화가 올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 온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자랄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기회를 통해 더욱 믿음이 성숙되는 기회로 잡아라. 오히려 축복이 될것이다란 말씀입니다

1 세기 초대교회의 문서들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란 말의 뜻은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이름 앞에 붙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티테디오스란 말의 뜻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란 말을 붙인 이유는 근심에서 해방된 자를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인데도 근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1.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속에서 어려움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감격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속에 믿음이 100% 가득 차있으면 근심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가득차 있으면 우리속에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충만이 충만하면 근심은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는 까닭은 바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 본적이 없기에 현실에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안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웬만큼 먹고 살만하게 되어서 지나친 변화로 부터 자유롭데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화가 있을때 자라납니다. 위기가 있을 그때가 믿음을 증명할 시기 입니다.

사도행전 8 장에 보면 예루살렘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흩어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히 안주하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권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 미래가 불분명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떠나신다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 근심한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없으면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희망이 없다는것은 죽은 삶이요 희망이있다는것은 곧 살아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은 생명이요. 희망을 잃는것을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희망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이 말씀을 보며 이해가 잘 되지 않는것이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앞과는 거리가 먼 천국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근심속에 잇는 제자들에게 다른 세상 이야기를 했을까요?

1. 이세상에서 천국 만큼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없기때문입니다.

천국 이야기만큼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근심을 잊게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천국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의 정확한 답은 천국가기 위해서 입니다.

2. 천국을 소망하는자는 현실이 작아보입니다

현재 고난이란 지금의 문제를 말합니다. 사업이 안되는것이나 겨울이라 일이 끊어진것 배고픔, 육신의 아픔 우리가 이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세상에 살면서 고난을완전히 피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이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큰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 근심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큰 일을 하는 삶일까요?

1.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목표를 두고 집중과 단순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분주하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주하고 바쁜 삶 보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생활스타일은 목표 지향적이고 단순합니다. 한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재정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사명도 각각 다릅니다. 바울이 뛰어나 사도이긴 하지만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신도로 부르셨다면 어느 부분에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지 어떤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원하시는지 혹은 독신인지 결혼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권력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청춘도 지나가고 말아요. 자기가 건강하고 이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쭈그러져서 보기가 흉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산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도하는 삶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3-14)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강해지고 기도 안 하면 무력해 집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같은 산도 금이 가고 곧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태산으로 오히려 묻혀 자기가 헤어나지 못해 죽습니다.

3.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6-18)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적고아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모든 고민과 계획은 자기가 하는 사람은 영적 고아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눈 앞에 닥친 걱정거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3. '티테디오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를 붙혀서 불러보고 (예, 티테디오스 바울), 이제 근심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다짐의 기도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한 후 목자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작성: 조희성 전도사